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8호 [루게 제23080호] 주체99(2010)년 5월 8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 조선로동당 합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중수동지,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동지가 수행하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은 형제적 중국인민에 대한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베이징에 도착하신 김정일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가경림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기동지, 국무위원 대법관동지가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와 호금도동지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5일과 6일 2일간에 걸쳐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상봉과 회담에는 중국측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습근평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평계희동지, 국무위원 대법관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외교부장 양걸지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가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회담에서 활력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는 중국의 동북지방을 방문한데 대한 소감을 피력하시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자기 나라의 형편을 각기 통보하시고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견해 일치를 보시였다.

호금도동지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공과 맞기 위하여 벽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친절한 인사를 전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며 조중친선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대를 이어 전해가는것은 쌍방의 공동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하면서 조중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지적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중조협조를 강화하는것이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추진시키고 쌍방의 공동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더 잘 수호하고 촉진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일련의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중국측은 조선측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입하고 조중친선우호

협조관계를 추동하여 더욱 깊이있게 발전시킬것으로써 두 나라, 두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하며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발전에서 더 큰 기여를 하려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의 친절한 초청과 뜨거운 환대에 사의를 표하시고 베이징에서 또다시 상봉하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은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수 없다고 하시면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의 승고한 국제주의적정신을 거울로 삼아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상해세계박람회가 성과적으로 개막된것은 중국의 국력에 대한 시위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회담에서는 최근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중최고령도자들의 역사적인 상봉 이후 두 나라사이의 선린, 친선과 협조가 더욱 증진발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지지와 연대성이 표시되었다.

호금도동지는 조선이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국가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둔것을 축원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조선당과 인민이 사회주의의 발전방향을 견지하고 조선동지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것을 지지하며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전당, 전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간고분투하여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당의 집권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과학적발전관을 실천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고 지적하시었다.

쌍방은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동북아시아정세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조중 두 나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각국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9.19공동성명의 립장에 따라 반도의 비핵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6자회담의 유관자들이 9.19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리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측은 각측과 함께 6자회담의 체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를 표명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중국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을 포함한 각 유관측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6자회담과정이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총서기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다시금 조선을 방문할것을 초청하시였으며 호금도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초청을 쾌히 수락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동지께서 5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시었다.

연회에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주규창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 조선로동당 합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중수동지,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가경림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리자춘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습근평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기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팽백운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평계희동지, 국무위원 대법관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외교부장 양걸지동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주임 장평동지, 철도부장 류지근동지, 문화부장 채무동지, 재정부장 사육인동지, 상무부장 천덕명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가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호금도동지께서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중국의 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이례로운 예술공연이 있었다.

연회는 시종 우애의 정 넘치는 화기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6일 속소를 방문한 호금도총서기동지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고 그의 동행에 베이징교외에 있는 박오생물유한공사를 참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유한공사를 돌아보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비롯하여 인류의 복리를 위한 최첨단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공사에 <최첨단의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생물 의료과학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더욱 빛나는 길을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2010. 5. 6  
김정일 >  
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오방국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총리인 온가보동지와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6일 속소를 방문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동지는 중국을 또다시 방문하신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조중친선관계발전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방문성공을 축하하였다.

그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중의교관계 수립후 60년은 국제정세의 파동이 심한 60년이였으며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손잡고 함께 전진하면서 분발한 60년이였으며 조중관계가 시련을 이겨내고 높은 단계에 발전해온 60년이였다고 말하였다.

오방국동지는 두 나라의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고 장구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두 나라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피로써 다져온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것은 중국당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중국당과 정부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자랑찬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오방국동지는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방침에 따라 두 당 총비서들이 이룩한 공동의 인식을 계속 실천에 옮기며 조중선린우호협조의 내용을 부단히 풍부히 함으로써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오르도록 전면적으로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당과 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 고위급의 래왕과 협조를 부단히 심화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무총리 온가보동지와 상봉하시고 친근한 우애의 정을 나누시었다.

여기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하국강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부총리인 왕기산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온가보동지는 중국을 방문하신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두 당,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그이께서 기울이신 헌신적인 노력과 중요한 공헌을 찬양하였다.

온가보동지는 조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해 중국인민은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올바른 전략과 파감한 결단, 정력적인 령도의 결과이라고 말하였다.

온가보동지는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조중친선은 불세이리라고 하면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하시고 키워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는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가보동지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특히 경제 무역협조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정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가보동지가 나라의 경제전반과 인민생활을 총괄해야 하는 분명한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뜨거운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변천된 대면서, 친친시를 비롯한 동북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 력사적략후성을 가버리고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중국의 발전모습을 목격하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으며 동지로서, 벗으로서 중국의 모든 일이 잘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국이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회정신에 따라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거둔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었다.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국무총리 온가보동지가 성대한 연회를 차리었다.

호금도총서기동지는 중국방문을 마치시고 베이징을 떠나시는 김정일동지와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귀국하시는 김정일동지를 베이징역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가경림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기동지, 지도간부들이 배례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귀국하시는 길에 료녕성의 소재지인 심양시를 방문하시었다.

김정일동지를 심양역에서 료녕성당 서기 왕민동지, 료녕성 성장 진정고동지, 심양시당 서기 증용동지, 심양시장 진해과동지를 비롯한 성과 시의 지도간부들이 맞이하였다.

왕민동지는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성과를 축하하고 심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료녕성당 서기 왕민동지를 비롯한 성과 시의 지도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심양송풍기유한공사, 심양제1기계제작공장, 오랜 력사유적인 북룡공원을 참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부단히 높이고있는 심양시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심양시방문을 환영하여 료녕성당과 심양시당에서는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지성어린 선물을 드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료녕성과 심양시의 지도간부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각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환대하여준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중친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이번에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을 호금도동지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의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으로서 조중친선의 년대기구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였다

## 연회에서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연설

존경하는 호금도총서기동지,  
친근한 중국동지들,  
나는 존경하는 호금도총서기동지의 따뜻한 초청으로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총서기동지를 비롯한 중국동지들과 뜻깊은 상봉을 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호금도총서기동지가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고 훌륭한 연설을 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가 대련시와 친진시를 참관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귀갑을 방문하여 자연이 가져다주는 봄날의 따스함보다 더 뜨거운 형제적중국인민의 친선의 정을 배부르 느끼면서 오래전부터와보고싶었던 중국 동북지방을 돌아보았습니니다.  
우리는 이번 방문기간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오랜 공업기치인 동북을 진흥시키는데 대한 전략에 따라 중국 동북지방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고있는데 대하여 직접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에 지난 19세기 제국주의 령강들의 조계지로, 세력권쟁탈전의 란무장으로 무참히 뜯겨우고 짓밟혔던 대련과 천진이 오늘은 세기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천지개벽을 이룩한 참신한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지난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왔던 수억만의 중국인민

들이 오늘은 활력에 넘쳐 팽활한 사회주의 대지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있는 벅찬 현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매우 정당한 정책이며 그것이 전국의 가는 곳마다에서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중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적친방인 중국에서 모든 일이 잘되는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견지하고있는 사회주의가 필승불패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적중국인민이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동소평리론과 《세가지 대요》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중국공산당 제17차대회정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화롭게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일떠세우며 전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당면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3차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에 제11차 5개년계획기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목표를 완전히 실현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며 성장률이 개망된 상해세계박람회와 앞으로의 광둥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주최함으로써 부강번영하는 중국의 국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칠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조중친선의 력사적증거자인 중국의 동북지방을 돌아보면서 일찌기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중국의 로세대

혁명가들과 함께 피어린 반일공동투쟁을 벌리시면서 마련해주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당 중앙령도집단이 시종일관 조중관계를 전략적전지에서 중시하면서 친선관계강화발전이 깊은 판심을 돌리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위업에 진심으로 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는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지난해 력사상 처음으로 《조중친선의 해》를 설정하고 고위급대담대담회와 일 있는 행사들을 잘 진행하여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조중친선이 계속 공고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이번 중국 방문이 우리들사이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호상리해를 가일층 증진시킨 훌륭한 계기로 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을 보다 전면적으로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더욱 융성번영하기를 축원하며, 존경하는 호금도총서기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중국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연회에서 하신 호금도총서기동지의 연설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동지,  
친애하는 조선동지들,  
동지들과 벗들,  
봄기운이 완연한 아름다운 계절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당과 정부,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친선의 정을 안으시고 중국을 방문하시였습니다.  
나는 중국당과 정부와 전체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이번 방문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어 중조관계발전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지리라고 믿습니니다.  
지난해 우리 두 나라는 중조의 교관계설정 6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력사상 처음으로 《조중친선의 해》와 관련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생기와 활력에 넘친 조중관계를 파시하였습니다.  
지난 60년의 력사는 우리가 시종일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두 나라 관계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며 큰 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서로 도와 주고 협력하면서 호혜와 공영을 실현하며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긴밀한 배합으로 사회주의위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리익을 함께 수호해나간다면 조중관계는 반드시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발전되어나갈것이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로서 조중친선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는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의 력사적책임입니다.  
중국당과 정부는 조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시종일관 전략적인 높이에서 조중친선협조관계를 틀어쥐고 수호하며 추동해나가고있습니다.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어제와 오늘날은 물론 앞으로도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중국당과 정부는 조선당과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들

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큰 기여를 할것입니다.  
오늘 근면하고 슬기로운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새로운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선적인 이웃, 친근한 동지, 진실한 벗으로서 조선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며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굳건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탐구하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거두리라 믿습니니다.  
끝으로 나는 조중친선협조관계의 부단한 공고발전을 위하여, 조중 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김정일총비서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동지들과 전체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동지에게 감사전문을 보내시였다

배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동지**

나는 친선적인 림방인 중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시각 우리를 따듯이 맞이하고 극진히 환대하여준 당신과 중국공산당 중앙령도집단의 친근한 동지들 그리고 베이징시와 천진시, 료녕성과 대련시, 심양시의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방문기간 중국인민이 과학적발전판과 중국공산당 제17차대회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 세기적락후성을 가시고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대한 중국인민의 각별하고 진실한 우정을 다시금 체험할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상봉과정에 리해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혁명선배들이 물려준 고귀한 유산이며 공동의 재부인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는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확인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조중친선이 두 나라 당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생기와 활력에 넘쳐 대를 이어 보다 훌륭하게 강화발전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형제적중국인민이 당신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여 초보적으로 부유한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할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주제 99 (2010)년 5월 7일

# 자주권의 수호자 조선인민군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원에 있는 김일성주체사상연구소 청년소조에서 4월 28일 불례전을 발행하였다.  
불례전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의 수호자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불례전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인민군이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여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불례전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체사상연구소는 1993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었습니다.  
그이의 선군정치에 발돋어나가면서 조선인민군은 결정적 역할을 하고있다.  
조선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이다.  
조선인민군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철의 보루로 강화하고있다.  
김일성주체사상은 언제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저시찰의 길에 제시하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군인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세심히 보살펴주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보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중대장은 만형으로, 중대정치지도원은 만누이로 불리우고있다.  
김일성주체사상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선군의 기치따라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애에 쳐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본사기자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뛰어난 령도력, 고매한 품모를 지니시고 고귀한 생애의 전기간 세계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물에 빛과 열을 주는 태양과도 같이 인류가 나아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고있다.  
태양처럼 한생을 빛내이신 절세의 위인을 그리는 마음이 대하로 합쳐져 지구상에는 4월 15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기념하는것이 하나의 판에 되었다고 해마다 그 준비사업이 보다 적극되고있다.  
세 세기가 들어와 열반제로 맞이하는 올해 태양절에 즈음하여 요르단, 스위스, 도이쉴랜드,

#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만민의 흠모심

폴로미아, 나이지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기념준비위원회들이 령이 조직되었다.  
정계, 사회계의 커다란 판심속에 진행된 결성식들에서는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적도기네민주당 제1부총비서인 공포, 문화 및 판심 광성 부상, 에리트르족민주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이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각국의 준비위원회들은 기념기간을 설정하고 절세위인의 발후의 저서들을 출판보급하며 토론회, 강연회, 김일성화전시회, 영화강상회 등 다양한 정치

문화행사들을 널리 진행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결성식장에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한평생을 강고리바치신 인류의 영원한 태양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과 함께 김일성주체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회세의 선군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심이 뜨겁게 흘러 넘쳤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떨러야지부 대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김일성주체의 혁명명예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주시는 절실적위인의 한생,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헌신의 한생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소 기념국위원회 위원장은 태양절기념준비위원회를 내오는것은 기념이민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체의 혁명명예를 깊이 체득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 위원장은 태양절기념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김일성주체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각각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조선인민의 행

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신다고 격찬하였다.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김일성주체사상연구소 주위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2010년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투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세계도처에서 태양절기념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된 사실은 20세기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인류와 함께 영생하신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4월 29일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조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희극 《산울림》은 조선로동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알파생산을 높이고 사회주의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펼쳐나신 어느 한 산간지역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펼쳐보이는 작품이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체사상 모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신 경희극 《산울림》을 국립연극단에서 제작조하여 널리 공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경희극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열국혁명과정에 이룩된 주체적연

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 부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대장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스런 위훈을 세운 력사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전투기술기체들을 돌아보신후 부대의 작전지휘실과 군사연구소실들에 둘러서서 훈련정형을 료해하시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부대 군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4월 28일 방콕파데슈 불리조선문사는 인터넷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그이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신 소식과 방콕국가합창단의 건군절축음악회를 관람하신 소식을 올렸다.  
본사기자

정교한 과일을 더 많이

당조직을 만들고 당원들이 당적분 공집행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게 하자면 정치사업을 한 번 하 여도 좋은 방법론을 세워 실속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의 전투력은 당조직을 이루고 있는 당원들이 당적분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활발히 움직일 때 더욱 높아지게 된다.》

초급당위원회는 공동주관철을 위한 투쟁에 진입하면서 이 문제에 특별히 주목을 돌리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전투속보 경연에 대고조분위기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세포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당면한 편지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 과정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당결정에 따라 작업반단위

높은 실적을 남기게 한 전투속보경연

강서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로 전투속보경연을 조직한다는 것을 알리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전투속보야 붓글을 잘 쓰는 직관원들이나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초급당위원회는 문제를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다.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 것은 전투속보경연준비과정을 통해 당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자는 것이었다.

작업반당세포들에서 경연준비가 활발히 벌어졌다.

초급당위원회는 당세포들과의 사업을 긴밀하게 짜고들어 작업반의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집체적인 지혜를 모아 전투속보제목을 정하고 내용에 두루 갖추어 한 다음 거기에 당원들의 결의도 반영하도록 경연준비에 힘을 들이었다.

당세포비서들은 작업반원

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전투속보제목과 내용을 어떻게 달며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해나갔다.

모든 당세포들에서 승백내기로 경연준비에 힘을 넣었다. 가공 2 직장당세포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은 평창의 손만이 열수 있다》는 전투속보제목이 나왔을 때였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대고조분투로 고무수동하는 혁신적인 제목이었다.

초급당에서 안부수동무는 지체없이 가공 2 직장당세포에 들어갔다. 작업반장에 당원들과 마주앉은 초급당위원은 속보의 제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강성대국의 대문은 누가 열어야 하는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힘, 자력갱생의 힘으로 열어야 한다고 해설해주며 편지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

갈것을 호소하였다. 전투속보제목에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세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당세포들에서 승백내기로 경연준비에 힘을 넣었다. 가공 2 직장당세포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은 평창의 손만이 열수 있다》는 전투속보제목이 나왔을 때였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대고조분투로 고무수동하는 혁신적인 제목이었다.

초급당에서 안부수동무는 지체없이 가공 2 직장당세포에 들어갔다. 작업반장에 당원들과 마주앉은 초급당위원은 속보의 제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강성대국의 대문은 누가 열어야 하는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힘, 자력갱생의 힘으로 열어야 한다고 해설해주며 편지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

들의 정신력을 발휘하기 위한 해설담화를 계획적으로 벌여나갔다. 당원들속에 들어간 초급당위원들은 그들에게 공동주관과 전투속보제목에 자신들의 생활을 비취보며 순간순간을 값있게 보람있게 살며 일해나간다고 해설담화를 능란하게 벌여나갔다. 모든 당세포가 전투속보경연준비로 들끓었다. 당원들이 분발하여 일떠서니 생산열의도 부쩍 높아졌다. 작업반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전투속보경연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전투적 사기를 북돋아주었고 새로운 대고조분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실천과정에 이 곳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 두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찾게 되었다.

본사기자 최 일 호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더 많이

은 블 과 수 농 장 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편 하자고 결심한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결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은블과수농장에서 당장전 65畝를 맞는 올해에 과수원을 선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춘파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 농장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 맛있는 과일을 넉넉히 먹이려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작전을 대담하게 하고 전투적으로 내밀고있는 것이다.

농장사설을 받아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은 일군들은 올해 낫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는 데서 나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게 하였다. 수십정보의 과수원에 낫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심는 높은 목표를

자재의 힘으로 수행하자면 잡초를 단단히 하고 달라 붙어야 했다.

여기서 제일 난문제로 제기되는 구멍이파기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던 일군들은 한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었다. 땅이 녹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당장 과일나무를 심을 구멍이 파기를 진행하면서 거름도 미리미리 날라다 채워넣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지난 기간에는 불철에 진행하던 여러가지 일들을 미리 앞당겨 내밀자는 것이었다.

일군들은 새로운 과수밭조성사업이 분장, 작업반별로 분산되어 진행되는데 맞게 작업조직과 로력배치를 바로 하여 구멍이파기실적을 올리면서 다른 영농공정들도 동시에 밀고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1월의 강추위에서 전초식구멍이를 파는 일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지만 일군들은 남면저 함마와 정대를 쥐고 언 땅을 깨내면서 경에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대고과수장종합농장을 훌륭히 건설한 내부공병사들처럼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도록 작업원들의 심정속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이 과수밭조성을 과학기술적으로구대해나갈수 있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은블과수농장이 구멍이파기를 내밀면서 거름실어내기에서도 앞서나가게 되자 분장, 작업반마다에서 달달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농장에서는 계획한대로 수십정보의 과수밭에 낫은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구멍이파기를 성과적으로 내밀면서 새로 조성하는 과수밭에 1만여 t의 질 좋은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새 품종의 낫은사과, 복숭아, 추리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를 자체로 생산하여 과수원 조성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김 순 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청진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일군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당사업의 이 원리가 얼마나 큰 생활력을 나타내는가를 우리는 청진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통하여 다시금 느끼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공장에서 현대화와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사업이던 때의 일이다.

그날 창사출작업반에 나갔던 초급당비서 리범수동무는 그곳 작업반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새로운 신발바닥형타의 개조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사실 이 형타를 말하면 며칠전 공장일군들의 모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문제였다. 운동화의 고무창을 수직장조 개조할데 대한 기술혁신과제가 나왔는데 새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면 형타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발기라고 해도 대중이 공감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실천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초급당일군은 협의회가 끝난 후 창사출작업반에

나갔다. 작업반장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기술혁신과제수행에 적극 떠밀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공동사설의 정신을 다스린 한 새겨준 일군이 새 기술혁신과제가 성공되면 제품의 질이 높아질것은 물론 자체리용에서도 실리적이라 고 말하자 누구나 기뻐하면서 형타를 당장 개조해놓겠다고 하였다.

초급당일군은 그때일을 되새겨보며 개조된 형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아직은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있었으나 착상은 완전히 새로웠다. 일군이 조금만 더 힘을 넣으면 될것 같고, 새 형타가 마음에 든다고 거듭 말하자 흥분한 작업반장은 밤새 고심하던 사연을 열정적으로 들려주는 것이었다.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의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합쳐나갈 때 실천에서 더 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 초급당비서는 이어 다른 직장의 로동자들도 만나보았다.

설계원 김동무와 공동조합 작업반의 혁신자신반동... 두명, 세명, 열명!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수록 설계와 제작문제 등 혁신적인 안들과 좋은 방도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수록, 들을수록 현실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술혁신을 성공시킬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었다. 마침내 한주일이면 무거운 형타를 가벼우면서도 뻘시있는 운동화의 시제품을 만들어낼수 있었다. 한달로 계획하였던 기술혁신과제를 한주일로 앞당겨 수행한셈이다.

성과를 글수록 초급당위원 회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발을 더욱 든든히 붙이고 공장의 전반사업을 이끌어 나갔다. 그 과정에 현대화와 관련된 수많은 일거리를 찾아내었으며 생산정상화의 동을 더욱 세차게 올릴수 있는 좋은 방도들도 모색해낼수 있었다.

제화직장의 현대화가 다그쳐지고 잘 꾸러진 준비직장에서 보여주기용 실행할수 있게 된 사실을 비롯하여 공장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성과의 비결에 대해 초급당일군은 참으로 인상깊은 말을 하였다.

《두명을 만날 때와 열명을 만날 때를 따를 때와 열명 만날 때를 따를 때... 그렇다. 당일군은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한다.》

본사기자 전 경 서

금어은하회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승백심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킨 일리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거세하게 타오르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일익으로 달려나가고있는 금어은하회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통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승백심으로만은 바깥을 돌아볼수 없으며 정치사업의 원바탕을 일으켜 당이 지파군대고의 불길이 모든 부름, 모든 초소마다에서 더욱 거세하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인 올해전투에서 초급당비서 배명심, 지배인 김성희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도 작업원들의 경정열의를 불러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다.

사회주의경쟁이 벌어져 자 그것은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며 시작하였다. 기술자들은 서로 승백심을 가지고 기술혁신운동에 떨쳐나갔고 재봉작업반을

비롯한 생산단위의 작업원들도 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속에 뛰어들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한 소식들이 속보판에 연이여 나붙게 되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작업원들속에서 발현되는 긍정적소행을 제때에 알려주고 소개일변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두었다.

그 나날에 재봉 6작업반과 8작업반을 비롯한 많은 작업반들이 매일 생산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었다.

공장에서 지난 1, 4분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은 이곳 작업원들의 경정열의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작업원들의 승백심을 불러일으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는 속에 공장에서는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되고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이 공장초급당위원회 사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중의 승백심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작업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떠밀어주는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본사기자 송 창 훈

신군사상학을 강화하여

신군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한편 초급당위원회의 일군들부터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자신들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토론과 논쟁의 방법으로 심화시키면서 아래부터 당조직들에서도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초급당일군들은 늘 당원들과 전투적으로 함께 일

하면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의 창시자 고 심화일同志의 불멸의 업적을 해설해주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도일인 판광의 부분당, 당세포들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사상을 깊이 학습할수 있는 자료가 드물 10여건의 전집을 만들어놓고 당원들과 전투적으로 함께 일

학습이 심화되는 과정에 판광의 당원들과 전투를 같이 해설해주고 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정도를 높은 석탄증산으로 만들어갈 철적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슴깊이 간직한 판광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전투를 같이 해설해주고 있다. 판광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혁신킴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로동통신원 전 순 희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남새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대성구역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김 진 명 찍음

송전선건설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

황해북도송배전부 일군들과

황해북도송배전부 일군들과 작업원들

를 성과적으로 다그쳐왔다.

그러던 어느날 송전선건설을 기현전에 끌어가기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건설기일을 앞당기려면 풀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해결방도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누구의 일군에나 긴장한 표정이 어렸던 그때 지배인 판광혁동무가 조용히 말을 했다.

“어떻게 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여기에서는 황해북도송배전부 생명이냐 살라고 하시면서 주실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민이냐 살라고 하시면서 주실수 있는 사람이 있고 크나큰 믿음에 있는대 무엇을 주려하셨는가.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사실 이들은 지난 기간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황철의 강철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송전선건설을 제기함에 끝까지 위하여 얼마나 많은 땀을 바쳐왔던가. 건설작업반의 작업원들은 강추위에서 철탕과 진주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다그쳤다. 리에이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더 요구되는 부속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단위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부속품을 해결해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도안의 여러 지역을 변조생산을 새로 건설하고 전력공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게 한 일군들과 작업원들. 최첨단을 정밀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는 투쟁을 벌였던 기사장 직북만동무와 기술자들... 지나는 나날을 돌이켜보며 일군들은 많은 공사를 다그쳐 끝낼 줄은 갈고 가슴을 불태웠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력공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자체비품을 찾아내자는 좋은 안들이 제기되었고 그를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목표가 높고 세워지고 전투방향도 명백해졌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힘과 지혜를 합치니 송전선건설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콘크리트주와 철탕에 비가 나왔다. 한편 철탕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졌다.

그러하여 건설현장에서는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철탕을 세우고 전선을 이어가는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는 깨끗한 향기로 인민의 행복을 가져오려는 결의가 차려져 있었다. 송배전부의 일군들과 작업원들은 오늘도 송전선건설장에 애국의 더운 땀을 바쳐가며 황해북도송배전부 2호발전소 준공의 날을 앞당겨가고있다.

특기기자 김 천 일

사업들을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특히 오랜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내세워주어 그들이 작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어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려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공과 일본세에 의하여 지장되는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최 영 길

당의 농농사방침 관철에 계속 큰 힘을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

사 주 군 에 서

의 가슴마다에 심음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되어 군안의 협동농장들마다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돌격대가 조직되고 다름없이 돌격하는 개기가 위대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전투장은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남면저 전투장으로 달려나온 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농장원들이 기세를 올렸다. 짧은 기간에 많은 고회석을 캐내자 힘에 부쳐졌다. 하지만 그들은 인민생활개조와 주민공익이라는 자각을 안고 고회석을 캐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갔다. 함마를 휘둘러대는 농장원들의 얼굴에는 땀이 마를새 없었다. 맨전 추위가 그들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듯했다. 하지만 농장원들은 더운 땀을 흘리며 자기들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한쪽에서는 고회석을 캐내고 다른쪽에서는 고회석을 구워내기 위한 작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드디어 농장원들의 뜨거운 열의에 의하여 생산하는 수백 t의 고회석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군일군들은 지난해 농농사과

정에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공방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었다. 협동농장들에 내리던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공방의 지력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도 불리우었다.

“뚝같은 올해에 농농사에서 거머쥘 농장을 부르자. 이런 신념과 열정을 안고 공농사방침을 빈틈없이 갖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공방기에서 더 현실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또한전도 달려나온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한포기의 공을 심어두고 추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정성들여 심고 있다.

본사기자 홍 성 철

농장원들의 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농장원들이 기세를 올렸다. 짧은 기간에 많은 고회석을 캐내자 힘에 부쳐졌다. 하지만 그들은 인민생활개조와 주민공익이라는 자각을 안고 고회석을 캐기 위한 투쟁을 힘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연산군 대산협동농장에서

연산군 대산협동농장에서 가던 사람보다도 올해 농농사방침이 담보된다 말한다. 그렇지만도 하다. 이 농장의 올해 농농사방침에서 주목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농장일군들이 올해에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였는데 기본을 두고 농농사방침을 빈틈없이 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농사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재배기술과 방법을 개선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대산협동농장에서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이 농장에서는 농농사방침을 철저히 실천하며 재배방법을 개선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하고있었다. 그것은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농농사방침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기때문이었다.

농장에서는 지난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을 심고 재배방법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를 놓고 농장일군들은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가 하는것을 심리하며 따져가며 분석해보았다. 그 과정에 제 2작업반에 도입한 새 물질을 놓고 많은 노력을 절약할수 있는 이 방법은 어디서나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것이었다.

농장에서는 이 방법을 모든 작업반에 일반화하기로 하였다. 한편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다. 앞선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농사방침을 결정적으로

당장전 65畝를 맞는 뜻깊은 올해에 농농사를 잘 지을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농장일군들은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였는데 주목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농장일군들이 올해에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였는데 기본을 두고 농농사방침을 빈틈없이 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농사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재배기술과 방법을 개선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대산협동농장에서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이 농장에서는 농농사방침을 철저히 실천하며 재배방법을 개선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하고있었다. 그것은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농농사방침을 결정적으로

실종은 거름을 포전에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더 많은 공을 생산할 불 같은 결의를 안고 금야군 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심심에 넘쳐 떨쳐나섰다.

특히 제 2, 4작업반의 농장원들은 높은 책임감을 발휘하여 유기질비료생산에서 질과 량을 다같이 보장해나갔다.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트랙토르와 굴기지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질 좋은 공포전에 내기 위한 사업도 밀고나갔다.

이와 함께 개발이수단들을 집중하여 공방을 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당장전 65畝를 노력적성으로 밟아내려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의 열정에 의하여 콩포전들의 지력은 더욱 높아져 갔다.

본사기자

농장에서는 여러가지 거름원천을 적극 동원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도시거름실어들이기와 개비타파기를 진행한 농장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유기질비료생산을 다그쳐나갔다.

본사기자

# 새 세기 연극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주는 기념비적 걸작

##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의 창조성과를 두고

### 투쟁과 생활의 철리를 깊이있게 밝힌 기름진 형상

###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명작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은 연극의 사상에 출제기초인 희곡문학(원작)으로부터 무대형상창조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연극예술의 면모와 특성을 훌륭히 살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걸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연극혁명과정에 이룩된 주체적연극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창작실현에 철저히 구현하여 이보다 높은 경지에 오른 우리의 연극예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노력영웅인 작가 리동춘이 주제 50(1961)년에 창작한 희곡 《산울림》은 주제의 인간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인신교양적의가 큰 작품인것으로 하여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커다란 생명력과 가치를 가지고 선군시대의 연극예술발전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원작은 혼자서 꿰는 소리는 낮은 문턱도 울리지 못하지만 활짝하는 체치는 산천을 울린다는 뜻깊은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천리마시대 창작자들인 작품은 레일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의의있는 시대적문제를 밝혀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도 그 생명력을 넘김없이 펼쳐지고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걸작으로 평가된 경희극 《산울림》은 연극무대형상을 시대의 미감에 맞게 재창조함으로써 원작의 사상적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고있다.

경희극에서는 산울림에 대한 극적인 기대를 안겨주는 서장과 3막에서 범비위산간에 펼쳐나갈것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화답소리, 4막에서 판리위원장 송재가 석철과 리당위원장의 부름에 호응하는 장면, 작품의 주제사상이 극중 인물들의 대항쟁을 통하여 밝혀지는 종장을 설정하여 무대형상의 전과정에 원작이 가지고있는 《산울림》의 철학적이미가 더욱 부각되고 연출의도가 장면에 내용이 깊이 심어지도록 하였다.

전장도를 놓고 청년들이 열정적인 토론을 벌이는 서론네 집과 달수네 집 아담장면에서는 새 세대의 통이 큰 일선배와 소극적이미 협소한

개조안에 매달려있는 송재와 달수의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차이를 비묘적으로 뚜렷이 보여주면서도 달수지킴이, 팽 튀기집, 도배종이세부 등 인물들의 희극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리들을 잘 안배하여 장면의 구성과 웃음이 생활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고있다.

경희극 《산울림》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눈물도 절로 나온다. 이것은 진실로 배우들은 세련된 연기술이 낳은 형상창조의 귀중한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희극에서는 주인공 석철과 금단이, 판리위원장 송재와 달수를 비롯한 극중인물들의 다양한 성격과 특색을 극중의 독특한 회화와 보간된 해독 웃음이 나오는 개성적인 장면을 잘 살려 관객들이 즐거움 속에서 리드미컬하고있다.

경희극 《산울림》은 무대미술에서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무대장치와 배경이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아담하면서 호젓하고 아늑한 무대장치의 모습이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는 서장과 1막, 기와집들과 함께 초가이영을 얻은 집들도 드문히 배치하여 낯은 시대로부터 물러받은 잔재를 털어

버리고 사회주의농촌의 문명한 생활이 꽃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초 우리 농촌의 시대상을 조형예술적으로 잘 부각시켜 보여주고있다.

중장에서 산골마을의 오늘과 메일의 행복을 전경으로 흐르며 배경으로 펼쳐보이는 장면은 마치도 천리마시대 인간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비앙의 풍야, 천리마를 타고 밭을 갈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며 질풍같이 내달리는것만 같은 환희로운 장면에 휩싸이게 한다. 이 장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대위에 펼쳐지는 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농촌의 어제와 오늘, 메일의 전모를 한눈에 다 그려볼수 있게 하는 깊이있는 장면이다.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작품의 주제사상을 조형예술적으로 밝혀주는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무대미술로 하여 관객들은 작품의 극세계에 깊이 끌려들게 된다.

경희극 《산울림》은 연극을 약형상에서도 《성향당》이신 극형식에 맞게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경희극에서는 장면음악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연극의 특성과 작품의 형상세계에 맞는

독특한 극음악구성법을 받아들여 인물들의 성격과 작품의 주제사상을 정서적으로 조율시키고있다.

특히 모든 합창으로, 크나큰 《산울림》으로 울려 퍼지는 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극중인물들이 무대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음악 구성을 하였으며 경희극적양식에 맞는 유쾌하고 낭만적인 성격의 리듬음악으로 장면전환을 생활의 리듬에 맞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 새로운 극적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출, 연기, 무대미술, 음악을 비롯한 예술창조의 모든 영역에서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는 참신한 형상을 창조한 경희극 《산울림》은 날이 갈수록 연극예술의 비대한 생활화를 과시하며 인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적연극예술리론에서 밝혀주신 《성향당》이신극형식에 맞게 다양한 형상수단과 수법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극의 자각을 훌륭히 갖춘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은 선군시대의 국보적인 작품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수정

국립연극단에서 제작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시기 위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이 작품을 수여하도록 하시어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혁명적인 연극으로서의 사상예술적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놓으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 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예술이여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고 견결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이런 경희극 《산울림》이 《김일성상》계관작품으로 된것은 주체의 연극예술발전사에

특기할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는 사변적인 경사로 된다.

선군시대에 새롭게 창작된 경희극 《산울림》은 우리 나라에서 《김일성상》을 수여받은 첫 연극예술작품으로 되었다.

우리 나라의 최고영예상인 《김일성상》은 제정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사회주의문화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문학예술작품들에 수여되어왔다.

대단한 창조성과 예술공헌 《백전백승 조선투쟁》, 《아리랑》, 《애국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선군시대에 태어난 《김일성상》계관작품들은 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로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감동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명작이 가지는 가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

는 국보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걸작인 경희극 《산울림》은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진제도와 예술공헌 《아리랑》과 관련한 합창 《눈이 내린다》와 같은 거대한 시대적폭과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국보적인 작품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질수 있게 되었다.

세월과 더불어 비대한 생명력과 가치를 지니는 문학예술재보들을 많이 가지고있는것은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며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남다른 행운이라 투쟁이다.

《김일성상》계관작품인 경희극 《산울림》의 국보적인 가치는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들음수목 귀에 쫓겨 들어오고 웃음속에 그의 의미를 새겨보게 하는 명대사.

이것은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한 관객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사는 뜻이 깊고 명백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연극은 대사의 예술이다.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명대사는 연극의 생명력과 같다. 경희극 《산울림》은 생활적이미가 깊은 대사로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듣고도 멍멍이 대담할수 없는 공생한 처지에 빠지게 하는 판리위원장 송재가 작업반장 달수의 형상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작품은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려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송재의 내면세계도 생활적인 명대사로 한껏 드러내고있다.

레일을 향해 높이 날아가는 청춘들의 지향을 함축된 대사형상속에 반영하고있다. 하여 해학적인 웃음속에 앞으로 펼쳐질 생활에 대한 극적기대를 한층 돋구어주고 있다.

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을 가지고 있고 유묘적인 대사로 보여 주면서 《산울림》에 깊은 생활과 투쟁의 철리를 대사형상으

로 심도있게 밝히고있는 작품은 그야말로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일부 일군들의 물러배를 받는것으로 하여 손배를 놓고있는 석철에게 대중의 힘을 발달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한사람이 내는 산울림보다 합창으로 울리는 산울림이 더 큰 법이라고 대위하는 리당위원장의 대사는 또 얼마나 웅장 깊고있다.

범비위산을 정복하려는 군중의 드높은 기세가 끝없이 깨치는 산울림으로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듣고도 멍멍이 대담할수 없는 공생한 처지에 빠지게 하는 판리위원장 송재가 작업반장 달수의 형상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작품은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려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송재의 내면세계도 생활적인 명대사로 한껏 드러내고있다.

레일을 향해 높이 날아가는 청춘들의 지향을 함축된 대사형상속에 반영하고있다. 하여 해학적인 웃음속에 앞으로 펼쳐질 생활에 대한 극적기대를 한층 돋구어주고 있다.

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을 가지고 있고 유묘적인 대사로 보여 주면서 《산울림》에 깊은 생활과 투쟁의 철리를 대사형상으

《예술작품의 가치와 생명력》

경희극 《산울림》은 어떤 작품이 진정한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는 명작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보여준 우수한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작품에 담겨져있는 사상에 의하여 결정되고 평가됩니다.”

어느 한 산간마을을 배경으로 한 경희극 《산울림》에서의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을 담고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대위에 펼쳐지는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새로운것을 보며 많은것을 배운다.

나 높은 비약과 혁신으로 부르는 시대의 부름에 불같은 정열과 헌신으로 대항해나섰던 1960년대 주인공들의 투쟁정신은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송고한 목표와 리상을 세워주며 새로운 대고초로 부르고있다.

백만 대고초시대에 나는 주인공 석철이처럼 살고있는가. 오늘날엔 송재와 달수처럼 시대의 전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과연 없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앞에, 시대앞에 스스로 광선의 물음을 제기하고 생활의 답을 찾게 하는 작품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초의 불길드높은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나 절실히 필요한 사상교양

의 교본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작품이 커다란 감동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은 무엇보다도 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세월의 흐름속에 두 번씩을 모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의 진리를 우리의 사회주의생활, 혁명적생활의 본색에 맞는 참신한 예술적화폭에 담고있기 때문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 앞으로! 이 작품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신 혁명의 진리, 투쟁의 진리가 소처럼 박혀있다. 여기에 경희극 《산울림》은 영원히 짚을 줄 모르는 시대의 메아리가 되어

오늘도 울리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신 경희극 《산울림》은 반세기 가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고있고 하시면서 이 경희극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재창조하여 널리 공연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있는 의미있는 사상을 안고 생활을 인민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할 때 문학예술작품은 명실공히 예술적 가치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는 진리를 경희극 《산울림》은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우정혁

작품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과 성격, 의의, 목적을 명백한 웃음과 재미있는 해학속에 담고 뒤떨어진것이 비판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강화되는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밝혀고있다. 그중에서도 작품에 등장하는 청춘남녀들의 생활적인 판계를 웃음속에 인신교양적가치가 있게 형성한것은 의의있는 형상으로 된다.

마음속깊이 옥음을 사랑하던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 순박한 청년인 기선, 그는 옥음이가 나머지 떠날생각만을 하던 나머지 무대예술소조요원에서도 왕왕 불협화음을 내는줄을 미처 다 모른다.

명왕한 웃음과 진실한 성격

깨끗한 청춘들의 감정을 시대적높이에서 형상함으로써 참다운 사랑은 사회와 집단, 조국과 고향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꽃피고 열매맺는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혀고있다.

석철은 자기하는 일에 애착을 못 가지고 들떠있는 옥음을 사랑 못 본채 갈수 없었다. 하여 그는 옥음을 일깨워주고 이끌어 주며 천리마시대의 청춘으로 삶을 빛내어나갈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사업장면에서 찾아온 두사람을 이해하는 기선이라 옥음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라당성있게 펼쳐

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것이다. 옥음을 이끌어주는 석철의 모습에서 기선은 참다운 사랑을 지키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새겨져 되며 금단은 동지들을 위한 일에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제대병사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더욱 반하게 된다.

경희극 《산울림》은 당과 수령의 명도따라 나아가는 새세대들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는 투쟁의 철리를 밝혀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도 커다란 생명력과 견인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차수

## 중국인민지원군렬사가족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 곳 참관

국방부 의사관공실 부주임인 관우비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가족대표단이 7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사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기본서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 제13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된다

제13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도이쉴란드, 몽골,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타이, 쿠바, 폴란드, 중국대륙의 270여개 회사들이 전람회에 참가한다.

전람회에는 CNC공작기계, 전기기계설비, 전자, 경영업체, 식료일용품 및 약품, 문예작품을 비롯하여 5 000여종에 8만 5 000여점의 제품들이 출품된다. 이번 전람회는 무역, 경제, 과학기술분야에서 나라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직접 지도하신 가극 <홍루몽>》, 《폭풍같은 반항을 일으킬 공연》

### 중국의 출판보도물들 널리 소개선전, 각계 인사들 공연에 커다란 기대 표시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피바다가극단의 가극 《홍루몽》 공연을 앞두고 이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이 대대적으로 소개선전하고있다.

출판보도물들은 공연시작전부터 보도열을 울리고있다. 《베이징통신》 4월 26일 부는 《무용이 우아한 조선판 <홍루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명도자의 지도밑에 걸작으로 완성된 가극 《홍루몽》이 중국에서 공연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61년 중국방문시 상해 회관에서 공연한 《홍루몽》을 관람하시었다. 주석께서는 조선에서 《홍루몽》을 창조하도록 하시고 중국지도자들과 함께 공연을 보아주시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중외교관계설정 60돐 및 조중친

선의 해를 계기로 《홍루몽》을 가극으로 완성하도록 하시고 여러차례 공연을 보시며 지도하여주시었다. 피바다가극단에서는 원작을 존중하고 충동적, 무대배경 등을 더 훌륭히 향상하였다. 가극에는 1980년 이후에 출생한 명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특히 가보옥역을 수행하는 배우의 활약이치는 1960년대에 이 작품의 주인공역을 하였다. 활이비와 손자가 가보옥역과 인연을 맺은 사실은 조선에서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홍루몽》공연준비시 중국문화부의 위임에 따라 중국전문가들이 조선에 가서 방조하였으며 공연의상도 기증하였다. 《홍루》를 비롯한 중국의 인터넷망들도 가극 《홍루몽》에 깃들여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과

가극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한편 인민일보에서 발행하는 《한자시보》 5월 부는 《조선판 <홍루몽> 이 베이지에 도착하여 공연준비를 하다가 끝나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김정일회고명도자께서 직접 지도하신 가극 《홍루몽》이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조선판 《홍루몽》은 최대한 원작을 존중하고있다. 친변문화하는 무대배경은 사람들에 강한 시각적충격을 준다. 중국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에서 《홍루몽》창작을 도와준 무용수 왕이빈은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에 대해 말할 때 마다 언제나 엄지손가락을 내보이곤 한다. 조선판 《홍루몽》은 조선무대예술의 최고수준의 공연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의 민족적감정이 어린 춤과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무대미술이 매우 훌륭하며 무대배경은 리듬감을 더해준다. 리듬효과하는 사람들을 신비한 세계로 이끌어간다. 피바다가극단은 《홍루몽》을 무대에 옮김으로써 조중문화에 또다시 교류의 다리를 놓았다. 중국에 도착한 피바다가극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가는데 4일 하루동안에만도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앙TV방송, 베이징TV방송, 《베이징일보》 등 17개 보도기관의 기자들 수십명이 우리 예술인들을 취재하였다. 중앙TV방송, 베이징TV방송은 4일과 5일 공연준비소식과 주요배우들의 기자회견을, 지방공영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각계 인사들은 피바다가극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가극 《홍루몽》 공연에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인민일보》 기자들은 지금 중국의 보도기관들이 피바다가극단의 《홍루몽》 공연에 대해 크게 떠들며 선전하고있다. 공연에 대한 중국관중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공연은 폭풍같은 반항을 일으킬것이다. 조선 예술인이 아시아문화축전에 참가한다면 축전무대를 크게 들이놓을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문화부 일군 류동생은 2005년 4월 조선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대해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자기는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였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 제10차 5. 21건축축전 진행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로서의 면모를 잘 살린 도시, 군소제형성계획들은 우리 인민을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적건축사상을 구현한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건축물의 사명에 맞게 건축구성요소와 내용물을 조

형예술적으로 반영한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살림집들과 호렘설계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문화적생활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 축전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나라의 건축선경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논문들과 건축설계 프로그램들, 다채로운

물들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특색있게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대동강종합건축기업소, 개신청년궁전 등을 돌아보았으며 축전장을 수많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청년학생들이 참관하였다. 폐막식이 7일 인민문화궁전

에서 있었다. 배달건축가건설감독, 건축, 건설부문 일군들, 건축가, 건설기술자들, 교원, 연구사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축전성적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박길우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폐막사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 조선은 주체의 강국, 사회주의보루

태양절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17일에 즈음하여 몽골, 캄보디아, 라트비아에서 집회, 강연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상, 주체사상,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발사는 조선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 주셨다. 캄보디아 ICC기술종합대학 학생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대성에 대하여 잘 알고있으며 그분들을 끝없이 흠모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캄보디아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물심판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캄보디아인민은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정일각하의 선군평도법에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영웅주조 라트비아전국조직위원회 위원은 사회주의 조선의 지조인 김일성주석의 관상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인류역사상 새로운 시대를 펼쳐놓는 혁명적 선봉자들이었다. 주체사상이 있어 세계피압박 인민들은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힘으로 역사를 개척해나가고있다. 김일성주석은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시고 인덕정치를 펼치신

만민의 친근한 어버이시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상영되었다. 몽골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을 현명하게 이끌고오시어 기쁨이로 가득 차있고있다.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를 해방하고 인민의 국가를 일떠세우셨으며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주석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셨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셨다. 오늘날 조선 인민은 김일성총비서동지의 선군평도법과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기차 김일성공업과학연구소장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칭송받으시는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니신 정치활동가로서의 위인적모

양을 보여주시어, 스웨리에, 기네, 이란, 페루에서 집회, 좌담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장에는 로씨야 《동일로 씨야》당 나호트까지부, 나호트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셨다. 오늘날 조선 인민은 김일성총비서동지의 선군평도법과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기차 김일성공업과학연구소장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칭송받으시는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니신 정치활동가로서의 위인적모

양을 보여주시어, 스웨리에, 기네, 이란, 페루에서 집회, 좌담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장에는 로씨야 《동일로 씨야》당 나호트까지부, 나호트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셨다. 오늘날 조선 인민은 김일성총비서동지의 선군평도법과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기차 김일성공업과학연구소장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칭송받으시는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니신 정치활동가로서의 위인적모

양을 보여주시어, 스웨리에, 기네, 이란, 페루에서 집회, 좌담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장에는 로씨야 《동일로 씨야》당 나호트까지부, 나호트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셨다. 오늘날 조선 인민은 김일성총비서동지의 선군평도법과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기차 김일성공업과학연구소장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칭송받으시는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니신 정치활동가로서의 위인적모

#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

**명석한 수수께끼 풀이**  
미국의 전 국무장관 알브라이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연회에서 알브라이트는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냈다고 한다. 내용인즉 열손가락을 가지고 단 한번에 16이 나오게 하는것이였다. 순간 연회장에는 긴장한 공기가 흘렀다.

열손가락으로 어떻게 수가 16이 나오게 할것인가? 쉽게 풀것 같으면서도 명석한 분석과 비범한 예지가 없이는 짧은 시간에 알아맞히기 어려운 문제였다. 바로 이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야 뉘뉘하게 생각할게 있는가고 하시며 참으로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손을

모시고 엄지손가락 둘로는 <<> 표시를 하시고 나머지 팔쪽 네손가락을 꼭 쥐어보시였다. <<복하기>>방식을 표시한것이였다. 그것은 볼 순간 알브라이트는 무척 놀라와하면서 두눈을 크게 뜨고 경악하는 장군님에 대한 경탄의 정을 담아 제일 먼저 박수를 쳤다. 경악하는 장군님의 예지에 감복한 그는 저도모르게 그이에 대한 경모의 목소리를 터쳤다.

# 해박한 지식에 탄복하여

이 생선되는가, 회전자의 각도가 45°인 라디오 생산되는가고 물으시였다.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속에서나 제기될수 있는 문제를 물으시는 경에는 장군님앞에서 로씨야의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뒤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에 있는 라디오생산기지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업소인 어느 한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잘 알

고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자기 나라의 웅만한 정지인들도 그 공장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알고있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몇마디 짚막한 대화를 통하여서도 그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세에 대해 조개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장군님께서는 이쯤에서부터 시의 공업경영상태와 생산실태를 로해하시다가 문득 공장에서 어떤 라디오

당 단체들이 얻은 경험을 교환하는 등 적십자본원칙을 수행하는것이였다.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은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자성, 자원적봉사, 단일성, 평등성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이 운동은 세계적범위에서 전쟁과 각종 무력충돌, 자연재해 등으로 무너진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자기 기본사명으로서 삼고 국제적 및 지역적 협조와 연대를 적극 도모하고있다.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락시키고자 하는 적십자 및 적반월국제연맹의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도 진행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적십자운동의 창시자 알브라이트는 지난 5월 8일을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고있다. 올해에도 이날에 즈음하여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

오늘은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이다. 적십자는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린 십자로, 적반월은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린 반달로 표시한다. 적십자 및 적반월의 의미는 그 어떤 정부적, 민족적, 정치적성격을 띠지 않으며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고 덜어준다 하는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859년 스위스상인 앙리 듀낭이 이탈리아북부지역을 여행하다가 전투에서 죽었거나 부상당한 수만명의 군인들을 보게 되었다. 황량한 들만큼 쓰러진 채 아무런 간호도 받지 못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부상자들을 보았을 때 그는 주면 마를사람들에게 호소하여 부상자들에게 대한 구호활동을 벌였다. 그 후 그는 전사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직을 내세울것을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앙리 듀낭의 노력으로 1863년에 《부상자들을 위한 국제구제위원회》(적십자국제

구제위원회)가 창립됨으로써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은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자성, 자원적봉사, 단일성, 평등성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이 운동은 세계적범위에서 전쟁과 각종 무력충돌, 자연재해 등으로 무너진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자기 기본사명으로서 삼고 국제적 및 지역적 협조와 연대를 적극 도모하고있다.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락시키고자 하는 적십자 및 적반월국제연맹의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도 진행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적십자운동의 창시자 알브라이트는 지난 5월 8일을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고있다. 올해에도 이날에 즈음하여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구제위원회)가 창립됨으로써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은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자성, 자원적봉사, 단일성, 평등성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이 운동은 세계적범위에서 전쟁과 각종 무력충돌, 자연재해 등으로 무너진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자기 기본사명으로서 삼고 국제적 및 지역적 협조와 연대를 적극 도모하고있다.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락시키고자 하는 적십자 및 적반월국제연맹의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도 진행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적십자운동의 창시자 알브라이트는 지난 5월 8일을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고있다. 올해에도 이날에 즈음하여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교통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로건설에 계속 큰 힘을 쏟고있다. 지난해말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도로길이는 총 382만 8000km로 늘어났다. 그중 고속도로길이는 6만 5000km에 달하였다 한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최근 새형의 무장집중을 생산하였다.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집중기는 탱크미사일들을 비롯한 신형무기들로 장비되어있다 한다. 앙골라에서 앙골라정부가 종합적인 농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계획이 수행되면 나라의 식량안전이 보장되게 된다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나라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공사는 2012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올해 첫 4개월 동안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증대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올해 3월에 설립자수가 전년도보다 12만 3000명 더 늘어나 총 2313만명에 달하였다. 최근 유럽동맹 통계국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물가 인상 튀르키예에서 올해 4월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1% 인상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더욱 두드러지는 모순

들이 보편기일이 오래된 날은 핵무기들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로 그 공간을 메우려는 미국의 기도를 알아차린데로 부터 난은 반발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과 유럽나라들사이의 관계가 냉각되고있는것은 필연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일어난 정치구도의 변화로 동서간의 군사적대결구조가 생겨났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면서 《동맹국들의 지리적 치명적 위협을 보호하는 군사분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서유럽나라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데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주요적소인 소련을 제압하는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고 유럽 나라들을 끌어들이고 이 나라들을 저들의 품안에 집어안을수 있게 만들었다. 미국이 나토를 조작하고 소련이 그에 대응하여 워르샤조약기구를 내움으로써 동서간에는 핵군비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미국은 소련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서유럽나라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단단히 거머쥔 목적들이 핵무기들을 서유럽나라들을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에 배비하였다. 그런데 냉전의 종식으로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서유럽나라들은 변화된 상황을 맹렬하게 보기도 시작하였다. 즉 이 나라들에 있어서 미국의 더는 《구세주》가 아니였다. 미국의 《보호》가 필요없게 되고 지

난 시기 자기들의 리익과 모순되어도 덮어놓고 미국에 추종하던 정책을 계속 실시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런 데로부터 이 나라들은 점차 미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국제문제들을 새로운 눈길로 보게 되었으며 점차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단적인 실례로 코소보전쟁때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 의해 단행되었지만 그것이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실현되던 한 사실은 그것을 증명해준다. 최근 미국이 도이쉴란드에 자국에 배비된 핵무기들을 전부 철수시킬것을 미국에 요구한 사실, 이 나라의 한 신문이 다른 나라의 화제문제에 간섭하고있는 미국을 비난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낸 미국이 자체의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등은 미국과 유럽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있음을 말해준다. 지금 유럽 나라들은 무역, 금융, 판매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자기들의 리익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또한 유럽 동맹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외교, 방위분야에서 미국의 견해를 견제하면서 독자성을 살려나가고있다. 국제면에서 유럽나라들과 미국사이의 의견상이는 날을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제반 사실은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정책에 반기를 들고나서고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 유미모순이 심화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조 록 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올해 3월에 설립자수가 전년도보다 12만 3000명 더 늘어나 총 2313만명에 달하였다. 최근 유럽동맹 통계국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물가 인상 튀르키예에서 올해 4월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1% 인상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전시회 에스빠냐에서 개막

조선전시회가 에스빠냐 바르셀로나의 《아시아집》 전시관에 4월 26일에 개막되었다. 전시관입구에는 우리 나라 기발이 게양되어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으며 영화상영시설들이 갖추어져있었다. 《아시아집》 총극장과 문화 및 전시회국장, 강연국장, 《아시아영화》국장, 바르셀로나총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 학장, 교수, 박사들, 국제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아시아집》 문화 및 전시회국장이 연설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품

들을 돌아보고 《메우어에 솟아난 조선》, 《꽃피는 처녀》, 《월미도》, 《도라지꽃》, 《한 녀학생의 일기》 등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그들은 전경같이 선군조선의 참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시아집》 총극장은 조선의 문화수준을 세계를 놀래우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상상을 초월한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는 훌륭한 평도자를 모신 인민만이 달성할수 있는 것이라고, 전시회를 통하여 조선을 더 잘 알도록 해주신 김정일평도자각하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말

하였다. 《아시아영화》국장은 조선의 찬란한 력사와 조선인민의 근면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조선영화들에 대해 감동되었다. 조선영화들의 특징은 다른 나라 영화들에서 찾아볼수 있는것은 독특한 매력에 있는것이다.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평도자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의 영화예술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르셀로나총합대학의 한 교수는 전시품들의 훌륭함과 매우 감동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선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시회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민주공로동맹시민협회가 4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유류에게 있어서 비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전쟁정형체계의 직접적

원인인 민주공로동맹시민협회가 4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유류에게 있어서 비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전쟁정형체계의 직접적

원인인 민주공로동맹시민협회가 4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유류에게 있어서 비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전쟁정형체계의 직접적

# 공정성을 위한 노력

중양 아프리카대통령은 모든 주민들이 빈곤을 청산하고 세계금융위기의 후과를 극복하는데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내발에서 빈곤청산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 지난 몇년동안 나라의 빈곤율은 24.2%로 감소되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빈곤율을 21%로 줄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한다. 베네수엘라정부는 국가예산의 60%를 사회발전 을 위한 사업에 돌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2009년에 나라의 빈곤율은 1998년의 48.1%로부터 24.2%로 감소되었다. 베루정부는 2011년까지 빈곤율을 현재의 37.8%로부터 30%로 낮출 목표를 세우고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시키고있다. 라트비아에서 최근 15개년경제발전전략을 작성하였다. 빈곤청산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올해부터 실시되게 된다 한다. 한편 제14차 아프리카개발 기금 및 정부수치자회의에서 내륙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들이 이룩되었다. 제19차 이베로-아메리카수뇌자회의에서는 빈곤을 청산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서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빈곤을 청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미군징복기 추락

미국의 사수스 케틀라이나주에 있는 한 군사기지에서 2일 정전현상에 돌이아던 《아라프》공격용직승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직승기는 박살이 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미군의 살인행위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간담원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행위를 계속 강행하고있다. 3일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지역리산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3기의 미사일

# 미국의 핵기지 철수를 요구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3일 해외에 있는 핵기지들을 철거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있는 군사기지들에 많은 핵무기들을 배비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요구하였다. 핵무기전파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미국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지역의 통합과 단결을 호소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나지오 톨라 다 실바와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에스 최근 브라질리아에서 있는 두 나라사이의 협조협정조인식에 한 발언에서 지역의 통합과 단결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나이제리아 대통령 사망

나이제리아대통령 알라지 우마루 무사 야라두아가 5일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국이 7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하였다. 본사기자

#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을 규탄

레바논수상 싸이드 하리리가 4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격적행위를 하고있는데 매우 감동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선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시회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본사기자

# 미국이 핵기지 철수를 요구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3일 해외에 있는 핵기지들을 철거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있는 군사기지들에 많은 핵무기들을 배비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요구하였다. 핵무기전파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미국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지역의 통합과 단결을 호소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나지오 톨라 다 실바와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에스 최근 브라질리아에서 있는 두 나라사이의 협조협정조인식에 한 발언에서 지역의 통합과 단결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나이제리아 대통령 사망

나이제리아대통령 알라지 우마루 무사 야라두아가 5일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국이 7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하였다. 본사기자

#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을 규탄

레바논수상 싸이드 하리리가 4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격적행위를 하고있는데 매우 감동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선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시회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본사기자